

韓國現代商業建築에서 나타난 非物質的 表現 特性에 관한 研究

韓 善 旭

(慶北大學校 建築工學科 碩士課程)

張 美 錦

(慶北大學校 建築工學科 博士修了)

金 正 在

(慶北大學校 建築工學科 教授)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합리주의 그리고 해체주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사조의 전개 이후 90년대에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다원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복잡하고 이질적인 경향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축사조 양상의 적용과 동시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양한 형태와 재료에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형형태 보다는 면적 개념으로 표피자체와 재료의 적용에서 새로운 건축표현을 모색하는 건축의 양상과 더불어 재료에 있어서 실험주의적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에 대한 가상과 허구의 가능성을 물성의 탈피가 아닌 미디어로서의 재료의 사용으로써 건축 형태를 추구하는 재료로서의 물질의 개념을 새롭게 대두시키고 있는 것이다.

환원적인 물성의 개념이 아닌 현대건축에서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비물질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다원화 되어진 건축물 속에서의 공동의 관심, 의도의 중첩이나 표현의 공유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동시대 건축의 해석방법과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물질의 일반적인 개념과 건축에서의 비물질화의 전개를 토대로 하여 현대 건축에

서의 비물질성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며, 국내사례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인 유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건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물질화의 개념과 건축에서의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 나타나는 전개를 알아보고, 둘째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성 유형과 표현특성을 분류해 보면, 이를 토대로 국내사례에 접근되어진 분석을 통해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경향 실질적인 특성을 알아보자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비물질화는 재료의 물성, 질감 또는 표면의 의미에 의한 물체사이의 긴장과 이를 통한 표면과 내·외부의 상호관계성을 통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관에서 나타나게 되는 비물질적 표현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의 작품사례의 범주는 1990년대 이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조사였으며, 비물질적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드러내 주는 시각적 전달성과 대중적 트랜드¹⁾라는 측면을 중요시하는 상업

1) 루시 리파드(LucyLippard)는 20년간의 예술에서의 비물질화 이후 향후 10년간의 재물질화(rematerialization)가 전개 되리라 예상함으로써 비물질화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동적인 특성임을 나타내었다.- '생물학적 지평을 넘어선 미디어아트' 루시 리파드, 로이 앤스콧, 1999, 中

건축물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비물질의 개념

일반적인 ‘비물질’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에 대응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물질 대 비물질’에 대한 담론은 매체가 지니는 물리적 세계로부터의 탈피, 즉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건축은 물질적 구상체로 존재하기에, 물리학, 수학, 철학에서와 같은 실제적 설명과는 다르게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에서의 비물질화는 일반적으로 건축의 기본적인 구성재료와 관련을 가지며, 크게 투명적 재료와 불투명한 재료로 나누어진다. 투명한 재료에 의한 표현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지우며, 동시에 외부의 환영을 강조한다. 반사, 투명, 불투명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 굴절, 유입, 반사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유리로 구성된 벽은 내부와 외부를 변형시키며 재료의 색과 빛에 의해 성질을 변화시킨다. 또한 유리는 시점과 시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불투명한 재료 고유의 특성을 통해 나타나는 질감에 의한 표현과 동시에 인공적인 재료인 페인트나 금속등을 통해 재료의 성질을 감추거나 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벽의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서의 비물질화는 이와 같이 재료의 물성, 질감 또는 표면의 의미에 의한 물체사이의 긴장과 이를 통한 표면과 내·외부의 상호관계성의 중요시하게 되며, 재료의 이미지에 대한 비물질화는 인지의 조작을 통해 물질을 제어하게 되며, 현대기술에 의해 열려진 가능성을 탐구를 의미하는 것이다.²⁾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비물질의 개념은 건축물 외관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는 ‘물성의 다른’, ‘물성의 없음’의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며 이를 토대로 재료성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2-2. 건축에서 비물질의 전개

2) 현대건축에 표현된 벽의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홍대석논
이관희, 1995

건축에서의 비물질화에 대한 논의는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며 이론을 가지고 발전된 개념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성의 수단으로서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물질적 구상체’라는 건축의 본질적 의미로 인해 그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이러한 비물질적 시도는 건축가의 시도를 통해서 행해져 왔으므로, 아래에서는 건축에서의 비물질화에 대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작품을 통해 언급되어진 내용들을 근현대 건축에서의 흐름과 연부시켜 건축에서의 비물질화의 시대적인 전개와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근대 건축에서의 전개

① 구성주의 건축(Constructivism)

구성주의에서는 순수추상의 추구를 위해 형태의 물질감의 배제를 나타냈는데 리시츠키(Eli Lissitzky)는 건축공간이 인간 인식과 형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한 분석으로 ‘프로운(proun)’을 제시한바 있는데, 1925년 ‘A and pan-geometry’에서는 이제까지 전개된 공간 지각의 모든 범주를 네가지 공간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네 번째 공간 개념인 ‘가상적 공간’이 현대 건축에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공간 지각의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리시츠키 스스로 ‘비물질적 유물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정의한 가상적 공간은 실제적용으로 인간의 심상이나 기억, 이미지에 바탕을 둔 공간 지각 현상이라기 보다는 대상의 진동과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는 대상에 대한 순간적인 영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 즉, 공간과 시간의 실제 세계는 비물질적 효과인 ‘동작’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② 데스틸(De stijl)

데스틸에서는 물성을 떠난 순수추상을 보여줌으로써 벽체에 있어서의 비물질화를 나타내는데 그 예로 슈뢰더 주택 내부의 가변적인 벽은 색채를 부가하여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배제함으로서 비물질성을 띠게 된다. 비물질성은 색채의 역할에 의해 표출되는 것으로 차원의 변형을 이끌어 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것은 건축에 도입된 시간의 개념, 즉 4차원 요소의 형태구성방식이며 입체파 회화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건축에서 시간이란 인자는 의미와 대조되지만 가변되

고 통합된 실체를 공간에 부여하면서 색채가 유기적인 표현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아우드가 로테르담에 1924년 지은 2층 연립주택에서는 석조나 벽돌이 주는 물질감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유리로 된 투명한 창문과 콘크리트로 된 불투명한 면이 요철없이 단일한 표면으로 마무리 됨으로써 벽면과 유리가 각각의 물성을 떠나 추상적 구성요소로서 지각되게 되면 이는 매스 감을 통한 부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2) 현대 건축에서의 전개

① 미니멀리즘(Minimalism)

미니멀 건축은 내부를 감싸는 평활한 표면과 개방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재료의 비물질화와 비물질성을 표현하고, 기하학적인 경계를 지닌 공간으로 느끼게 된다. 즉 매스, 면, 볼륨, 표면 각각의 개별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간을 구성하고,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내부와 외부 공간의 한정을 통해 면 자체의 구성과 볼륨들의 구성에 의한 전체적인 공간구성, 면과 표면의 구성에 의한 적층적 공간구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표면에 의해 매스의 성격은 결정되며, 빛, 색채, 질감의 사용이 면과 표면의 순수성을 강조한다.³⁾

건축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극단화로서 재료의 비물질성을 의미하는 유리재료 사용에 관해 도미니크 폐로의 예를 통해 볼수 있는데. 그의 투명재료 사용을 미니멀한 건축의 명료함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적인 재료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건축에서 사용되는 유리면은 실체적 투명성의 가치와 유리가 갖는 견고하면서도 깔끔한 외장 재료로서의 역할 또한 보여주게 되는데 미니멀 건축에서의 재료적 즉물관의 극단적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② 해체주의 건축(Deconstruction)

포스트모던 건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신들의 단편적인 변칙상황들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에 반해, 해체주의 건축은 처음부터 과학패러다임을 디자인 방법론으로 삼았으며, 근대건축이 시도한 4차원 공간에 대한 추상적 언급이나 움직이는 건축 등의 시간성을 도입하는 대신, 건축의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전제였던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의심⁴⁾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해체주의 건축에

서의 비물질화는 무중력, 탈중력과 같이 구축적 특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여지거나 현대건축에서의 철과 유리의 사용의 보편화를 토대로 구조재료의 발달을 통해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의 건축형태의 확산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쿱 힘멜브라우의 'Funder Factory'에서는 지지자체의 표현으로 다양한 각도의 부재들을 파편처럼 모아 놓기도 한다. 굴뚝의 울동감, 솟아오르는 듯한 굴뚝, 유리를 구겨놓은 듯한 모서리 부분, 돌출되어 나온 철재보, 가새 같은 수직, 수평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각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는 '옥상개조 계획안(198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짝이는 구조적 투명 열흡수 유리는 주요 유리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휘어진 비틀어진 형태로 나타난 중력이라는 물리적 요소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③ 사이버 건축(Cyber Architecture)

사이버 건축에서는 물질의 개념은 일반적인 물질의 개념과는 다르게 인식되는데, 각각의 형질이 하나의 구조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비트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 곧 단형의 형질로 분화된 물질로, 물질이 아닌 비트일 뿐이다. 물질이란 구조로부터 벗어나서는, 비트의 형태로 전환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비트란 물질로부터 벗어난, 탈물질화된 기호로 인식⁵⁾되어지는 것이다.

사이버 건축가인 마르코스 노박(Marcos novak)은 작품인 '전송건축(Trans architecture)'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축의 비물질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작업한 사이버 건축에서는 거주 가능하고 상호작용하는 영화적인 이미지를 통해 존재와 범위 확장의 경계는 엇갈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제안하는 Liquid architecture란 물활론적이며, 추상적인 요소들 가운데 변동하는 건축이며, 음악으로 향하는 건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비물질로 향하는 건축을 말하며, 전자적 형태 또한 비물질화 되어 있는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이버 건축에서는 비트 단위의 기호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감을 배제하며 비물질성을 나타

3) '표면과 의식과 문제', 김광현, 플러스 1998.2

4) 건축과 해체, 김원갑, 世進社, 2000

5) 비트의 운명, 네트의 사회. 라도삼, 커뮤니케이션북, 1999

내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컴퓨터의 언어나 은유들은 긴장된 전통적인 건축의 정의들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적용된다. ‘실시간은 현재 건축가의 실체적인 관심사’라는 것 뿐 아니라, ‘지탱가능하고, 전송 가능한 환영’이 가장 물질적인 속박-중력, 구조등-만큼 실체적인 것이 되고 있다. 형태는 허구를 따른다. 그러나 비트의 조직은 돌과 시멘트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탈물질화된 비트 단위의 사이버 건축에서 비물질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시대 사조를 통해 나타난 비물질성

사조	비물질적 표현 특성	작품
근대 건축	구성주의 순수 추상을 위한 형태의 물질감 제거	El Lissitzky · Proun Room
	순수성, 관념성	
데스틸	재료 자체의 물성을 떠난 추상적 이미지 추구	G. Rietveld · Schroder House
	부유성, 추상성	J.J.P Oud · Worker's Housing
미니멀리즘	재료적 즉물관에 대한 극단적 추구	Dominique Perrault · SAGEP
	투명성, 은유화	· Hotel-industrial JB
현대 건축	물질의 분해를 통한 중심과 중력의 이탈	Coop Himmelblau · Funder Factory
	반중력, 경량화	Bernard Tschumi · Le Fresnoy · GlassVideo Gallery
사이버 건축	상호작용성(interactive) 내.외부 물질감 제거	Marcos novak. · H2O
	초표피, 스크린	Toyo ito · Egg of wind

3. 현대 건축에 나타난 비물질성

1986년 파리의 풍피드 센터에서 열렸던 비물질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루타르는 현대 문화를 비물질의 문화로 규정한 바 있다. 비물질성이란 다원론의 시대에서 과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것을 뜻하며 어떤 물질의 성질을 다르게 변화시키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대의 지표적인 경향은 현대에 들어와서 혼합적인 재료의 강조⁶⁾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를 걷고 있는 건축은 전반에 걸쳐 비물질성이 거론되어오고 있으며, 근대 이후 정신과 물체의 고민으로부터 그 이론적 정립이 숨가쁘게 만들어 오고 있고, 이것은 물질과 비물질에 관한 내용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 비물질성의 개념을 건축물 외관에서의 표현되어지는 물성의 달름과 물성의 없음으로서 접근하며, 건축에서의 비물질성의 시대적 전개에서 보여진 내용을 토대로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화 경향을 재료적인 관점에서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이는 재료가 가지는 형태라는 측면에서 구축적 개념을 감소시키는 관점과 재료가 가지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탈이미지적 관점 마지막으로 재료가 가지는 의미를 확대시키는 개념으로서 비물질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3-1. 비구축적 표현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비구축성에 관련된 논의는 지극히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재료들과 상반되는 구성 재료들, 즉 가볍게 보이고, 투명하여 기존의 재료들보다 “구축적 특성이 감소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 혹은 “재료의 구축성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관하여 논의 되어지고 있다. 이는 가벼운 구조, 가벼운 경계면이라는 조형세계를 지향하며 기능, 재료 표현과 더불어 건축공간의 또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1950-1960년대의 시대 상황 아래에서 전개되었던 브루탈리즘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지니는 폴리스적 혹은 궁정적 측면으로부터 형태주의 운동을 정의하였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의 시간이 흐른 1980-1990년대의 시대 상황 아래에서 형태주의는

6) 근대 건축 이후 나타난 의미 분화에 관한 연구, 이광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물질의 특성을 지우고 부정하려는 마이너스적 혹은 부정적 개념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하디드(hadid)나 미첼 사이(Michel Saee)의 이러한 반형태적 개념은 재료의 고유한 물질적 특성을 지워 감추려 한다는 뜻에서 비물질화로 불릴 수 있다. 비물질화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이들의 반형태 개념은 현대 건축에서 건축가들을 옥죄는 생산성의 규율적 정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픈 건축가의 자유 조형의지를 상징한다.

재료마다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고유한 형태를 거부함으로써, 재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생산성과 조형성 사이의 상쇄적 관계라는 현대 건축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거부적 고발을 시도하는 것이다.⁷⁾ 사진1의 빌아레츠(Wiel Arents)의 AZL Pension Fund Haedquarter 프로젝트에서는 회사 전체의 행동 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증축건물을 끼워 넣는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개요와 주어진 대지조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새 건물의 구성요소들은 문자 그대로 기존 상황에 끼워 넣어졌다. 직각을 이루는 증축 부분은 건물의 뒤쪽면과 이어지면서 기존부분에 삽입되었다. 새 시설의 주요부분은 콘크리트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힌 얇은 슬라브층들로 이루어진 연장된 블루 안에 수용된다. 이들은 서로 살짝 비껴가면서 지면에 파고든 커다란 선형공간 위에 떠있다. 떠있는 효과는 무중력, 반중력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는 매스감의 삭제나 상대감을 통한 부

유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사진2의 엠마누엘 보두앵(E&L.Beaudouin)의 Trade Fair Hall에서는 각각의 외부 입면에서 보이는 지붕 끝부분은 그곳이 하중을 받는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공중에 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기존 구조는 삼면이 둘러싸여 일관성과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나머지 한 면은 건물에서 돌출해 천개가 있는 주랑을 형성한다.

3-2. 재료의 은유⁸⁾적 표현

최근에는 재료에 있어서 다양한 천연재료와 산업재료를 혼용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기존의 건축에 사용하지 않던 재료의 사용과 전혀 다른 느낌의 이질적인 재료를 혼용하여 질감과 색채의 대비효과 또는 병치효과에 의한 긴장감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고유한 물성을 지닌 재료를 사용하는 전례적인 표현방식 뿐만 아니라 특정 의도가 요구하는 특수한 이미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지 않거나 금기시 하던 재료까지 사용하며,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의도적으로 혼용함으로써 표현성을 추구한다.

건축이 역사적 선례, 혹은 관습적 제한으로부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까지 금기시 되어온 우연성의 요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제까지 행해진 재현(representation)하는 건축에서 건축가들이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고 제시(presentation)하는 건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사진3의 바움술라거 에벨레의(CarloBaumschläger&DietmarEbene)의 예에서 나타나는데 그의 작품인 Sirch Manufacturing에서는 각층의 패사드를 이질적인 목구조로 처리하여 두 층간의 양식적 긴장감을 유발하였으며, 지상에 파묻혀 있으며 중량감이 느껴지는 콘크리트 용벽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지상층의 레벨은 반투명 패널을 마감재로 이용했으나, 유리를 이용한 상층레벨의 길쭉한 부분은 연속적인 낙엽송 리브에 둘러싸여 있다. 이 낙엽송 리브는 콘크리트 계단과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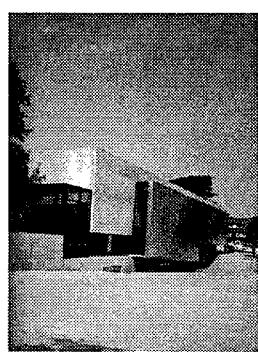


사진 1 AZL Pension Fund
Haedqu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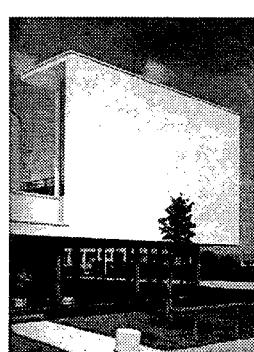


사진 2 Trade Fair Hall

7) 형태주의 건축운동-형태와 조형의지, 임석재, 시공사, 1999

8) '수사', '은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스까르빠의 작품과 미니멀리즘 건축의 개념적 연관성에서 나타난 특성은 물성의 전환성, 암시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재료 특유의 물성을 지나되, 다른 재료를 연상하게 한다거나, 물성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디자인에 의해 새롭게 전환됨을 의미함. -비물질적 표현을 적용한 미디어센터 계획안, 김성남, 홍대석논, 2001中

은색 철제 출입구가 있는 서쪽까지 연속된다. 지상층은 지표면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건물 전면의 양쪽으로 보이는 풍경을 한껏 감상할 수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창문 덕분에 캔틸레버 되어 있는 주층에는 헛빛이 한층 더 많이 비춰진다.⁹⁾

헤르초크 & 드모이론(Herzog & de Meuron)는 재료의 연구를 통해 그만의 건축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건축적 이상을 실현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위적, 자연적 과정을 통합시키기 위해 과학과 기술, 발명을 사용하며 감성에 이르는 건축을 추구한다. 그림4의 ‘시그널 박스 아우프 텁 볼프’(Signal Box Auf dem Wolf, 1992-1995)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비물성화의 예를 보여주는데, 콘크리트 선형판재를 수평띠처럼 연속적으로 붙인 후 위아래 부재 사이의 벌어진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콘크리트가 하나의 반투명한 막으로 느껴지도록 처리하고 있다. 뢰비우스의 띠처럼 구부린 cooper band를 이용하여 딱딱한 형태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에 공예작품의 느낌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으며, 헤르초크 & 드모이론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box형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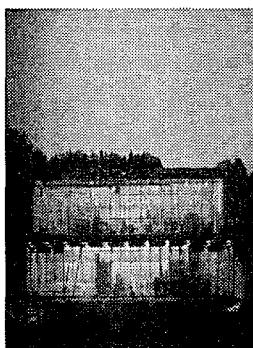


사진 3 Sirch Manufactu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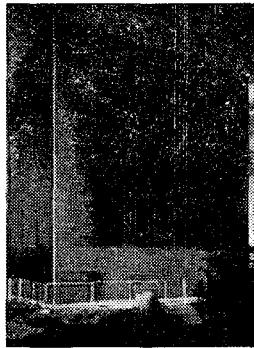


사진 4 Signal Box Auf dem Wolf

3-3. 매체¹⁰⁾적 표현

9) Baumschlager & Ebere, 김정희 역, C3 1999

10) 매체(媒體)란 미디어(media)·수단(手段)이란 뜻으로,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간접적·일방적으로 많은 사회정보와 사상(事象)을 전달하는 신문·TV·라디오·영화·잡지 등이 대표적이다. 매체와 수단에 따라 신문·잡지·도서 등의 인쇄매체와 TV·라디오·영화 등의 시청각매체(비인쇄 또는 전파매체)로 나누어진다.-미의 퓨전시대 미·예술·대중문화의

현대 건축은 오늘날 더욱 진보된 기술에 의해 다양한 표현방식들을 지원 받고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즉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감성적 면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형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매체적 이미지들이 우리의 일상환경에 지배적 부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멀티미디어와 다중차원에 의한 표현이나 파사드의 전자적 광고의 일부에 불과한 스크린적 수준을 뛰어 넘는 그 이상의 의미성으로 상호 작용하는 동적인 조각이 되려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벽의 경우에는 몇 개의 레이어로 지각되는 마치 막같은 표피를 포함한 구조체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 벽들은 에너지 저장, 심지어 에너지 발전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와 매우 복잡한 설화적(narrative)구조나 상호 작용하는 예술적 표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장식되기도 한다. 이런 벽은 그 자체로 건축적 서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가능성 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¹¹⁾

Adolf Krischanitz의 Pabello de francfort에서는 유리장식으로 사용된 타이포 그래피를 통해 그들만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빛과 물성의 표현을 실내에만 표현하지 않고 플로팅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내·외부의 경계를 없앨 수 있었던 것이다. 태양의 위치가 변화면서 투명한 유리의 다양한 조건들은 패널사이로 스며드는 헛빛이 조성하는 신비로움에서 주변환경을 비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외부의 전경, 유리 벽면 전체를 빡빡하게 나열된 알파벳들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실·내외를 차단하기도 소통시키기도 하면서 내·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도 하며, 광장을 홍보하는 랜드마크적인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다.

Koen van velsen의 로테르담에 위치한 메가시네마는 우선 외관이 파형의 아크릴 판이라는 비교적 값싼 느낌의 재료로 마감되어 있다는 점과 영화관의 기능적 형상이 만들어 내는 부정형한 형태가 파로티 위에 올려져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으로 마감된 파형의 아크릴 판이라는 반투명 마감재는 야간에는 내부의 조명에 의해 부유하는 발광체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간

만남, 양해림, 철학과 현실사, 2001 中

11) Christian W. Thomsen, Mediaarchitecture-Part I: Defining Positions a+u, 1995.1. pp80-83,

에는 햇빛을 은은하게 실내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이면서 비교적 부정형으로 느껴지는 매스를 시작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메가시네마는 영화관이라는 기능 외에도 WEST8이 디자인한 광장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작용하는 시네마마신 같은 역할이었다. 대부분의 최근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영화관이 메가시네마처럼 상층부의 대형 상영관을 배치, 지상층을 도시의 통로로서 가능케 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듯이 메가시네마도 1층홀이 영화관 전용이 아닌 광장의 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치 다양한 복합영화관의 매스들의 조합을 한 형태의 반투명한 비닐포장지를 덮은 듯한 유연한 개념이 이 메가시네마에 적용되고 있었으며 WEST8이 디자인한 광장 역시 야간에서 바닥에서 빛이 나오거나 주간에 물을 뿜어내는 등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무대로 서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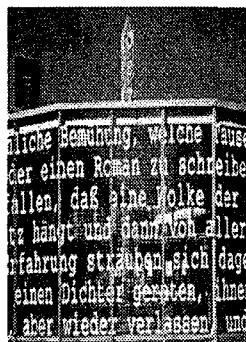
그림 5 Pabello
deFrancfort

그림 6 Mega Cinema

3-4. 소결

비물질적 표현 유형과 그 하위인자인 표현요소를 살펴본 결과 나타난 특징을 열거하며 다음과 같다. 작품에 나타난 비구축적 표현은 물질이 가지게 되는 형태적인 면에서 재료성에 대한 반형태적인 표현으로서 비물성을 나타내며 경량화와 부유성을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료의 은유적 표현은 물질이 표현하는 이미지라는 측면에서의 재료성에 대한 탈이미지적 표현으로 비물성을 나타내며 관찰자에게 허구의 이미지를 주게되는 시각적 허구성과 재료의 혼용을 통해 일반적인 물성

이 나타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보이게 하는 혼성화라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표 2 비물질적 표현 유형에 따른 요소의 특징

경형 요소	표현 요소의 특징
비 구축적 표현	건축에서의 경량화는 형태적인 부피감의 탈피이며, 폐쇄적 구조적 해체를 통해 표현되어짐 가벼움을 통해 구축성이 가지는 한계에 유동감을 부여함
재료의 은유적 표현	건물이라는 구체적 결과물을 부력구조물의 모습으로 처리함으로서 자신의 재료관을 역시 반형태적 경향을 통해 표현함 구축적 특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부유하는 건축의 이미지를 나타냄
비 텍스트적 표현	재료 특유의 물성을 가지나 다른 재료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기준과는 다른 이미지를 표현함
재료의 혼용화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디자인에 의한 새로운 전달을 위해 의도적으로 재료를 혼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함
* 매체적 표현	정보의 상호전달(interactive)를 물질감을 해소하며 이는 일반적인 건축재료가 아닌 미디어적인 재료의 가능성은 암시함 정적인 텍스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
스크린	동적인 스크린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

* 마샬 맥루한은 'The medium is Message'(Marshall McLuhan,Quentine Fiore,1998)에서 메시지는 매체를 타고 전달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메시지는 '매체 자체'('The Medium is the massage')라는 주장함, 이러한 매체표현 유형 중 정보와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의 앞서 건축 사례에서 보여진 스크린과 텍스트라는 두 가지의 매체를 통해 접근함

마지막으로 매체적 표현은 재료성의 의미와 영역의 확장이란 측면에 관찰자에게 정보의 상호작용(interactive)을 행함으로서 물질감을 해소시키게 되며 일반재료가 아닌 미디어적인 재료로서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정적인 텍스트와 동적인 면으로 나누어 재료성에 대한 의미와 영역의 확장의 개념으로 텍스트¹²⁾와 스크린¹³⁾으로 나누어 비물질의 표현 경향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의 내용과 같다.

4. 한국현대상업건축에서 나타난 비물질적 표현 특성

4-1. 사례분석의 기준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구성하여 사례분석을 한다. 2장과 3장을 통해 정리된 3가지 표현유형과 이에 따르는 각 2가지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첫째, 한국현대건축에의 접근을 통해 접근가능성을 알아보며, 둘째, 실질적 사례를 통한 비물질적 표현의 한국적인 경향과 건축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상사례의 표현유형의 흐름과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앞서 비물질성은 현대 건축에 있어서 재료적인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되어왔는데 한국 현대 건축에서 건축재료에 있어서 실험적인 시

도와 재료적 표현이 많이 있어왔던 1990년대 이후를 그 시기적 범주로 하며, 상업건축물은 시대의 건축상황과 사회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건축물로써, 건축구법과 건축재료의 사용, 건축 표현 등에 있어 그 규모적인 잇점과 대중성이나 제반 사회현상들이 반영되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건축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물질적 표현 양상의 대상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한국건축에 있어서 도시중심지로서 동종류의 건물과의 경쟁관계라는 측면에서 상업건축물의 대상의 범주로 접근하였다.

4-2. 사례분석

(1) 한국현대상업건축의 비물질적 접근

한국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물질적 접근은 건축에서의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실험적 시도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 있어서 건축재료에 있어서 실험적인 시도와 재료적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비물질화에 대한 접근은 재료의 이미지에 대한 비물질화를 통해 인지의 조작, 물질의 제어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언급된 내용을 통해 접근사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2) 텍스트는 인쇄 매체적 특성을 지지며 이는 인상(印象)이 지속되며, 매체 자체가 보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풀이하여 보이는 이점이 있고, 기억효과가 높고 설득력도 큰 특색을 가지고 있다. 대중매체에서의 분류로는 신문·잡지·서적에 의한 광고를 비롯하여, 전단(傳單)·다이렉트 메일·카탈로그·팸플렛·포스터·하우스 오간 등 종류가 매우 많다. 컬러인쇄의 발달에 따라 시각효과(視覺效果)가 진보하여 한층 더 큰 소구력(訴求力)을 가지는 매체로 되었다. 그 반면 경합광고(競合廣告)가 범람하고 있어,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광고표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오브제로서 bookart의 활용방안과 새로운 paradigm 연구, 박지연, 홍익대 석논, 2001,中 정리

13) 스크린, 영상매체는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진 언어문화, 그 중에서도 활자문화와는 흔히 대비적으로 설명된다. 작자의 의도나 대상의식을 초월한 우연한 현실이 기록됨으로써 내적 이미지에 의거한 묘사와는 다른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상은 또한 이처럼 대상과 유사하므로 언어와는 달리 기호로서는 추상적·개념적인 상징성에서 뛰어지만 개별적·특수적·직접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ibid

표 3 한국 현대 건축의 비물질적 접근

작 품	
국내건축	전시형, 궁(宮), 1998
비물질적 특징	박성칠, Duson 21, 2000
비물질적 특징	하층부의 개방감과 상층부의 무거움 매스감으로 전체적으로 부유하는 큐빅의 매스감을 빛을 통해 보여줌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재료의 은유적 표현	
작 품	
국내건축	마영범, Ningen, 1998
비물질적 특징	전시형, Tool pub, 2001
비물질적 특징	자갈과 광목과 철망등의 소재의 중첩과 조명효과를 통해 재료자체와는 다른 재질감을 표현함
특징	허구적 본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시멘트 물결도양의 외벽의 성형은 그 물성을 쉽게 드러내지 않음
특징	재료의 혼성화↔재료의 낯설게 하기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매체적 표현	
작 품	
국내건축	레오시스, TMC, 1999
비물질적 특징	유정한, 유황오리Ⅲ, 2001
비물질적 특징	내부에서 발산되어진 조명은 파사드 전체를 하나의 사인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는 스크린과 같은 효과를 줌
특징	외부의 유리 벽면 전체에 나열된 한자들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건물의 용도를 암시하여 주는 텍스트적 역할을 함
특징	스크린 ↔ 상호작용성
	정적텍스트↔정보 시각화

(2) 한국현대상업건축에 나타난 비구축적 표현

표 4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비구축적 표현

표현 특성	전개유형		
	건축물	건축적 의미	표현방식
비구축적	경량 평수생각	클래딩이나 전창을 통해 경계를 가볍게 하거나 유리상자의 관입을 통해 매스감 해소	재료가 가지는 물리적 경량성을 이용한 가벼운 이미지
	Geo	경량메탈이나 유리와 같은 재료 가지는 사실적 경량성을 표현함	
표현	부유성 조성아류티폼	열림과 닫힘의 상하층의 상반된 매스감을 통해 부유함을 표현	상,하부의 매스감의 대조를 통한 상대적 부유감
	최기철물	하부층의 입구와 필로티 형성을 통한 부유감	

전반적인 국내 작품에서의 비구축적 표현의 경향은 미니멀리즘적 성향의 강세와 더불어 극단적 추상화와 함께 보여지며, 이는 박스형태의 심플한 건물등에서 재료의 사실적 경량성이란 측면과 매스의 막힘과 열림의 대조를 통한 부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이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비구축적 표현의 실질적인 건축적인 활용은 경량성은 클래딩이나 전창을 통해 경계를 가볍게 하거나 유리상자의 관입을 통해 매스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많이 행해졌으며, 부유성은 상하층의 상반된 매스감을 통해 부유함을 표현 하부층의 입구와 필로티 형성을 통한 부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행해졌다. 비구축적 표현 사례와 건축적 의미, 표현 방식 등을 정리하면 표4의 내용과 같다.

(3) 한국현대상업건축에 나타난 재료의 은유적 표현

표 5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재료의 은유적 표현

표현 특성	전개유형		
	건축물	건축적 의미	표현방식
재료의 은유적 표현	시각적 허구성	 나마	자개나 목판과 같은 실험적 재료의 사용을 통해 물성의 성질을 감출 빛, 조명을 통해 질감과 재료의 성질을 감출 것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임
		 Sperl	빛에 의한 모뉴먼트의 착시효과의 유도
	혼성화	 Ningen	재료의 중첩을 통해 의도된 이미지 표현 낯설지 않은 재료의 배열을 통해 낯설게 하기-재료의 새로운 이미지 표현
		 ssamzie	재료의 물성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시각적 전달을 위해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

전반적으로 재료의 은유적 표현의 한국적 경향은 재료의 물성을 감추거나 다르게 나타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한 질감이나 재료적 표현에 있어서 혼성적 기법의 사용들을 통해 상호간의 긴장감으로 재료의 물성을 완화시켜 보이게 표현하는 예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료의 은유적 표현의 실질적인 건축적인 활용에선 시각적 허구성은 빛, 조명을 통해 질감과 재료의 성질을 감추는 기법으로써 나타났고, 혼성화는 재료의 중첩과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표현이 나타났다.

표현사례와 건축적 의미를 정리하면 표5의 내용과 같다.

(4) 한국현대상업건축에 나타난 매체적 표현

표 6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매체적 표현

표현 특성	전개유형		
	건축물	건축적 의미	표현방식
매체적 표현	 Woffer Ent	부분조명을 통해 스크린화 되어진 사인(sign)의 효과	투명, 반사, 불투명을 이용한 스크린 효과
	 Zooooo2	이미지의 반사를 통한 스크린 효과는 시각에 따라 변화되는 이미지 연출	과
현 텍스트	 The show	유리를 사용한 레이어링을 통한 텍스트 이미지 표현	텍스트를 통한 효과

현대 건축은 오늘날 더욱 진보된 기술에 의해 다양한 표현방식들을 지원 받고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감성적 면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지붕과 벽, 스토리적 패사드의 상징성 표현, 움직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심지어 이들의 표피에 진동하는 그래픽을 하거나 소리를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술적 도움에 의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는 스크린적인 패사드를 통해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보여진다. 이러한 예는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유발의 수단으로써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차용되어진다.

매체적 표현의 실질적인 활용에선 스크린은 건축물 외관을 표피화 하여 투명, 불투명, 반사등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텍스트는 유리의 레이어링을 통한 타이포 그래피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매체적 표현 사례와 건축적 의미를 정리하면 위의 표6과 같다.

4-3. 소결

현대의 도시 환경 속에 대응하는 설계방식을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는 어지럽고 추잡

한 상업주의가 지배적인 세력에 대항하듯 극도로 절제되고 단순한 형태를 이용하여 좀 더 추상적이 고 폐쇄적이며 송고한 건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미니멀리즘을 통해 자연과 빛, 순수한 구조의 표현과 노출, 재료의 영구성, 완벽한 비례 등이 요구되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상업주의와 척첨한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현대 도시의 중첩 성과 애매 모호한 상황들을 오히려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가들은 건축의 혁신적(radical) 개념을 역동적인 공간과 투명한 재료, 파격적인 구조와 재료들을 이용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경우 실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다분히 높으나 전자의 경우 지나치게 차갑고 건조한 결과물의 초래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¹⁴⁾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물질적 접근은 건축에서의 다원화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는 실험적 시도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 있어서 건축재료에 있어서 실험적인 시도와 재료적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비물질화에 대한 접근은 재료의 이미지에 대한 비물질화를 통해 인지의 조작, 물질의 제어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 특성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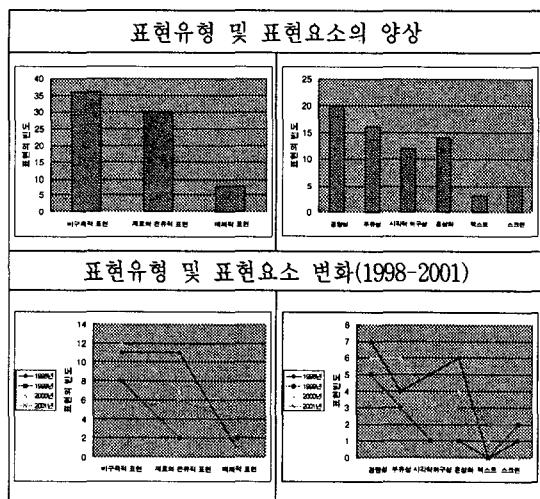
첫째,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은 비구축적 표현에서는 미니멀리즘의 강세와 더불어 박스형 건물에서의 유리나 경량메탈과 같은 가벼운 재료의 사용이 많았으며, 재료의 은유적 표현은 몇몇의 건축가를 통한 실험적 접근외에는 새로운 재료의 사용보다는 기존의 재료의 재배열을 통해 낯선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매체적 표현에서는 동적스크린을 유도하는 예보다는 텍스트이미지를 통한 사인의 효과를 유도한 건축물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 유형의 빈도는 비구축적 표현, 재료의 은유적 표현, 매체적 표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 요소의 표현 빈도는 경량성, 부유성, 혼성화, 시각적 허구성, 스크린, 텍스-

트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 특성의 변화의 경향은 1990-2001년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변화 추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1998년 1999년에 걸쳐서 강하게 나타난 비구축적 표현에서의 경량화와 부유성은 2001년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인 적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매체적 표현에서의 스크린과 텍스트 이미지는 1998년과 1999년의 적은 빈도와 달리 2001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현대건축에서의 초표피와 스크린 이미지와 같은 매체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표 7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 양상



5. 결론

건축에 있어서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의 다원화 양상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건축사조의 양상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와 재료에 적용되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에 대한 허구의 가능성을 물성의 탈피가 아닌 미디어로서 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비물질의 개념을 새롭게 대두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에서의 비물질의 개념과 전개를 토대로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화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건축과의 접근성을 토대로 이러한 현상의 실질적인 유형을 파악하였다.

14) 'Minimal or Radical', 최철수, 공간, 2001.11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건축에서의 비물질적 표현 유형은 비구축적 표현, 재료의 은유적 표현, 매체적 표현으로 구분되었으며, 표현 요소로는 경량성, 부유성, 시각적 허구성, 혼성화, 스크린, 텍스트 이미지로 구분되었다.

둘째,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의 비구축적 표현은 유리나 금속재와 같은 반사면의 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사실적 경량성을 토대로 한 시지각적 경험의 전달과 매스의 열림과 닫힘을 통한 상대적인 부유감의 표현이 나타났다. 비구축적 표현의 실질적인 건축적인 활용은 경량성은 클래딩이나 전창을 통해 경계를 가볍게 하거나 유리상자의 관입을 통해 매스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많이 행해졌으며, 부유성은 상하층의 상반된 매스감을 통해 부유함을 표현 하부층의 입구와 필로티 형성을 통한 부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행해졌다.

셋째, 한국 현대 상업건축에서 재료의 은유적 표현은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나타내는 혼성화와 재료의 중첩, 빛과 조명을 통해 물성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재료의 은유적 표현의 실질적인 건축적인 활용에선 시각적 허구성은 빛, 조명을 통해 질감과 재료의 성질을 감출수있도록 나타났고, 혼성화는 재료의 중첩과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이 나타났다. 새로운 재료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진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은 재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의 결과로서 표현이 절제되고 환원적이면서도 고도로 의도된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내에 있어서 매체적 표현은 표피의 개념으로 정보의 상호작용을 통한 움직임과 감응성을 보여주었던 외국사례와는 달리, 스크린 이미지는 건축물 외관을 표피화 하여 투명, 불투명, 반사등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텍스트는 유리의 레이어링을 통한 타이포그래피(typographic)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또한 조명의 효과로 나타나는 변화감이나 텍스트의 사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보여졌으며, 이는 앞으로의 테크널러지의 적용을 통한 많은 실험들이 기대되어 지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시대 관심의 대상인 비물질적 표현 특성에 대해 다루었으나, 재료가 유도하는 외형적인 형태와 이미지를 다루는 한계를

가졌으며, 향후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사이버 건축에서의 비물질화에 관련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철규, 영남대 박논, 한국 형태 표현요소로서 테크놀러지의 이념 및 원리에 관한 연구, 1995
2. 이관희, 홍익대 석논, 현대건축에 표현된 벽의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1995
3. 이기승, 현대건축 형태와 변천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1998
4. 이광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근대 건축이후 나타난 의미 분화에 관한 연구, 1995
5. 김정재, 기문당, 건축의장론, 2000
6. 권영걸. 공간 디자인 16講. 국제 2001
7.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8.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 시공사, 1999
9. C3, Baumschlager & Ebere, 1999
10. C3, Wiel Arets, 1999
11. ArcoEditorial, Minimalismo, Konemann, 2001
12. Luigi Prestinenza Puglisi, Hyper architecture
13. AD, Folding in architecture.1993
14. Elcroquis, Hezog & de meuron, 1993
15. Neil Leach, The MIT press, Anaaesthetics of architecture, 1998
16. JohnBeckmann,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The virtual demension, 1998
17. KatjaSteiner, Burkhalter+Sumi, Birkhauser, 1999
18. Carlos Ferrater, Claus en Kaan, GG, 1997
19. Francoise Pace Jean Nouvel, Institut francais D'architecture, 199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materialized Expression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Han, Sun Wook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Kyungpook National Univ.)

Jang, Mi Hyu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al Kyungpook National Univ.)

Kim, Jung Jae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developing aspects of variety design in form and material. The various architectural trends even change classical materiality. This concept has the background of current idea - digital, information, imagination with paradigm. So this study aims to show the present status of the expressions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under its dematerialized situation. And like this, we know for study about the relation between dematerialization and current architecture, still more Korean present condition.

In chapter one, the background, purpose and method of study are explained.

In chapter two, this study inquires the general concept of dematerial.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forming basic background this study understands the characteristic.

In chapter three, this study inquires the aspect of dematerialized expression in modern architect

In chapter four, with characteristics drawn in chapter three, this study show the present status of the expressions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under its dematerialized situation.

In chapter five, a synthetic conclusion is presented.